문화광장

하이난 탐방기

홍 정 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하이난을 바라보며 돌이켜 제주를 생각하게 된다. 도시의 성장과 전통이라는 관점이다. 앞으로 20년 후 제주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하이난(海南)은 제주도 18배의 섬으로 인구 923만명의 중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관광지다. 지난 11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지역 대표축제인 '하이난성 환러제(歡樂節)'에 한국예총 제주도지회(회장 부재호)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제주문화공연 팀 일원으로 참가했다. 하이난 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상적이었다. 하이난의 최대 관광구역인 산야를 비롯해 섬 전체가 청결하다는 인상과 섬 전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 및 리조트, 호텔이 이 곳이 관광특구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1988년 중국 정부는 하이난을 외국인 투자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2009년 12월, 2020년까지 하이난을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된다. 아울러 싱가폴,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 체제의 선진경제의 중심을 만들고자 개혁개방, 친환경, 관광소비, 중대전략을 가지고 2025년까지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하이난의 GDP는 4363억위안(78조원)이었다. 이 합계 중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21.95%, 2차 산업은 22.34%, 3차 산업은 55.71%를 차지했다. 2018년 7600만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았다. 하이난의 현재의 모습은 원창우주발사기지, 2지역의 국제공항과 5세대 이동통신의 5G가 상용화돼 있으며, 시속 250㎞ 고속기차가 섬전체를 3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국제관광특구지역인 산야의 경우 7㎞의 야룽베이 모래해변과 더불어 두바이에서 영감을 얻은 인공섬 Phoneix island(봉황도)의 건축은 이 도시가 나아가고자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녹회두에서 바라보는 산야베이의 야경은 디자인 된 건축물 중심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제관광특구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매일매일이 축제가 있는 섬이며 야시장 또한 도시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주고 있는 모습을 마주한다.

중국 3대 쇼 가운데 하나인 송성가무쇼를 통해 하이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가진 전통과 역사를 수준 높은 관광 문화 콘텐츠화하며 무대위에서 잘 설명하고 있었다. 작곡가로서, 콘텐츠 생산자로서 도전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 뿐이랴! 하이난 소수민족의 공연에서도 많은 도전을 받는다.

하이난은 전략적인 문화 도시이다. 문화가 도시를 만들고 그 토대가 관광산업의 기반인 것이다. 제주를 바라본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전통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또한 그 전통은 시작점은 언제일까 하는 점이다.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의 계승 발전'이 낱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이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관점과 그 콘텐츠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예술가의 힘인 것이다. 하이난에서 제주의 꿈을 바라보게 됐다.

사설

4·3수형인들 진정한 명예회복 이뤄지길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은 올해초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이 형사 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제주4·3 수형생존인과 유가족 등 39명은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4·3 수형생존인들이 위법한 군법회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국가 배상 소송입니다. 형사 보상이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형사배상은 구금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총 금액은 103억원입니다. 국가의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구금과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장기간 살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구금기간 중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입과 고문 피해 등을 추가 산정해 청구한 것입니다.

4·3 생존수형인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후에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전과자는 '빨갱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연좌제'로 옭아매는 바람에 취직도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대물림이 됐습니다. 4·3 때문에 수형인들은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따가운 질시와 냉대, 그리고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부디 이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시설공단, 급하게 보다 제대로가 중요하다

제주도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행자위에서 시설공단 설립조례안에 대해 인력과 효율적 운영방안 미흡 등을 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시설공단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력수급과 배치, 재정 측면 등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공영버스, 주차시설 등의 운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4대 분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들 분야는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무 인력만 해도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 기간제를 포함 정원 1105명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거대 조직의 설립인 만큼 치밀한 사전 준비와 설계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인력 설계가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전직 문제를 포함 인력운용 문제가 여의치 않아 조직의 비대화될 우려가 큽니다. 효율적 운영방안 역시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자칫 졸속 출범에다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과 인력운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공단 설립 당위성만을 내세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중교통체계처럼 일단 추진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제주도정에 멍에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사전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촘촘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행착오로 혼란과 도민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열린마당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하세요

김 지 경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제주는 벌써 고령사회를 지나 노인인구가 도민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도 전체 인구(67만738명)의 14.86%에 해당하는 9만9721명이며, 80세 이상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26.51%에 해당하는 2만6438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도내 어르신들의 안정된 여가 활용 및 소득보전 활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및 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령,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활동능력 등을 감안해 공익활동 9500명, 사회서비스형 650명, 시장형 1050명, 취업알선형 150명 등 총 4개 분야로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2020년 중앙지원 노인일자리 참여계획 인원은 1만1350명으로, 39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2019년 대비 54.7% 증가한 것으로 제주지역 및 노인 욕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공익활동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에 월30시간(주3회, 일3시간) 활동을 하게 되며,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만65세 이상자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복지시설 업무 보조, 시니어컨설턴트 파견 등 수행기관과의 계약 하에 월60시간(주5회, 일3시간)을 참여한다.

또한 전문형 노인일자리사업인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사업은 만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서귀포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에 문의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개발공사·사회복지협의체 업무 협약

'주거복지' 위해 손 맞잡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일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시 읍·면·동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

이날 협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주거복지 강화에 해당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취지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 송은범기자

사회복지 예산 갈수록 상승

○…제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제주시 재정운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제주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3년 6.3%에서 2018년 14.2%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제주시 복지 예산 비중도 높아져 내년 시 예산안의 36%를 차지.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 등까지 포함하면 제주시 전체 예산 1조7000억원 중 38%를 차지한다"며 "복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된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위기학생 위한 나침반 되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일 도내 초중고 교원 400여명에게 '학생 자해 대응 교사용 안내서'를 전달.

늘어나는 학생 자해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제작한 안내서에는 학생 자해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사를 위한 초기 대응 전략, 최초발견자와 학교의 대응 등의 내용이 수록.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용 안내서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야만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위기학생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세심한 역할을 당부. 김지은기자

부 고

김제덕 어머니 **남평문씨 순언(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일 00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3일(화)
▶발인일시: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분향실
▶장 지: 구좌읍 송당 선영

아 들 김제덕
딸 김미자
사 위 이종보

※연락처 : 이종보 010-9041-4613

부 고

부형민(前 아라동주민자치위원장) 어머니 **나주김씨 징인(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일 14시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4일(수)
▶발인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부씨가족묘지(선영)

아 들 부형민 며느리 오복희
딸 부길자 사 위 양응배(故)
손 자 부경훈 손 부 송유진
경식 박지영
경수 박미례
외손자 양승철
양승훈
친족대표 부봉전 외손녀 양승희

※연락처 : 부형민 010-5698-870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제주시정 소식

제4회 시민원탁회의 토론 참가자 공개 모집
○ 모집기간: 2019. 11. 20.(수) ~ 12. 13.(금)
○ 모집인원: 시민 100여명
○ 토론의제
-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초질서 지키기,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진단
○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면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접속, '제4회 시민원탁회의 토론참가자 모집' 배너 클릭
- 서면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팩스, 방문접수)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자치행정과
○ 내 용
- 도로 위 노상 적치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제주시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질서 분야는?
· 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53, fax 064-728-2259)

2019 북-클래식 콘서트 운영
○ 일시 : 2019. 12. 11.(수) ○ 대상 : 제주시민 200여명
○ 모집기간 : 2019. 11. 28. 10:00 ~ 2019. 12. 10. 18:00까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우당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문화행사 → 프로그램신청
○ 장소 : 제주시 우당도서관 소강당
○ 주요내용 : 작가, 문학평론가와 클래식 음악가의 협업콘서트 개최
○ 문의 : 제주시 우당도서관(728-8343)

제8기 제주시 시민기자단 모집 안내
○ 모집 및 접수기간: 2019년 12월 2일 ~ 12월 13일(방문접수 시 업무시간 내)
○ 모집인원: 40명(남-20명, 여-20명)
※ 성별 선발인원 미달시에는 총 선발인원(40명)에 맞춰 타 성별 선발
○ 지원자격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제주시에 등록된 사업체 대표 및 직원
· SNS 활용 가능자(필수)로 제주가치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자 자
※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기자단에 중복 신청 시 활동희망 우선순위 기재 (도청 도민기자단 및 서귀포시 시민기자단 중복 활동 금지)
○ 신청방법 및 선발계획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자기소개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서류양식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방문신청: 제주시청 공보실(본관 2층)
· 전자우편: yhyun4528@korea.kr
○ 심 사: 자체 서류심사
○ 발 표: 2019년 12월 26일 (합격자 개별 통보)
○ 활동기간: 2020년 1월(위촉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제주시 공보실(☎728-2021, 2024)